

오늘의 차트(Chart)



10년만에 맞이한 국내 제조업 업황 호조 사이클

그림1.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제조업 업황 BSI: 업종별 BSI 역시 연초 이후 강한 상승 기조가 이어지고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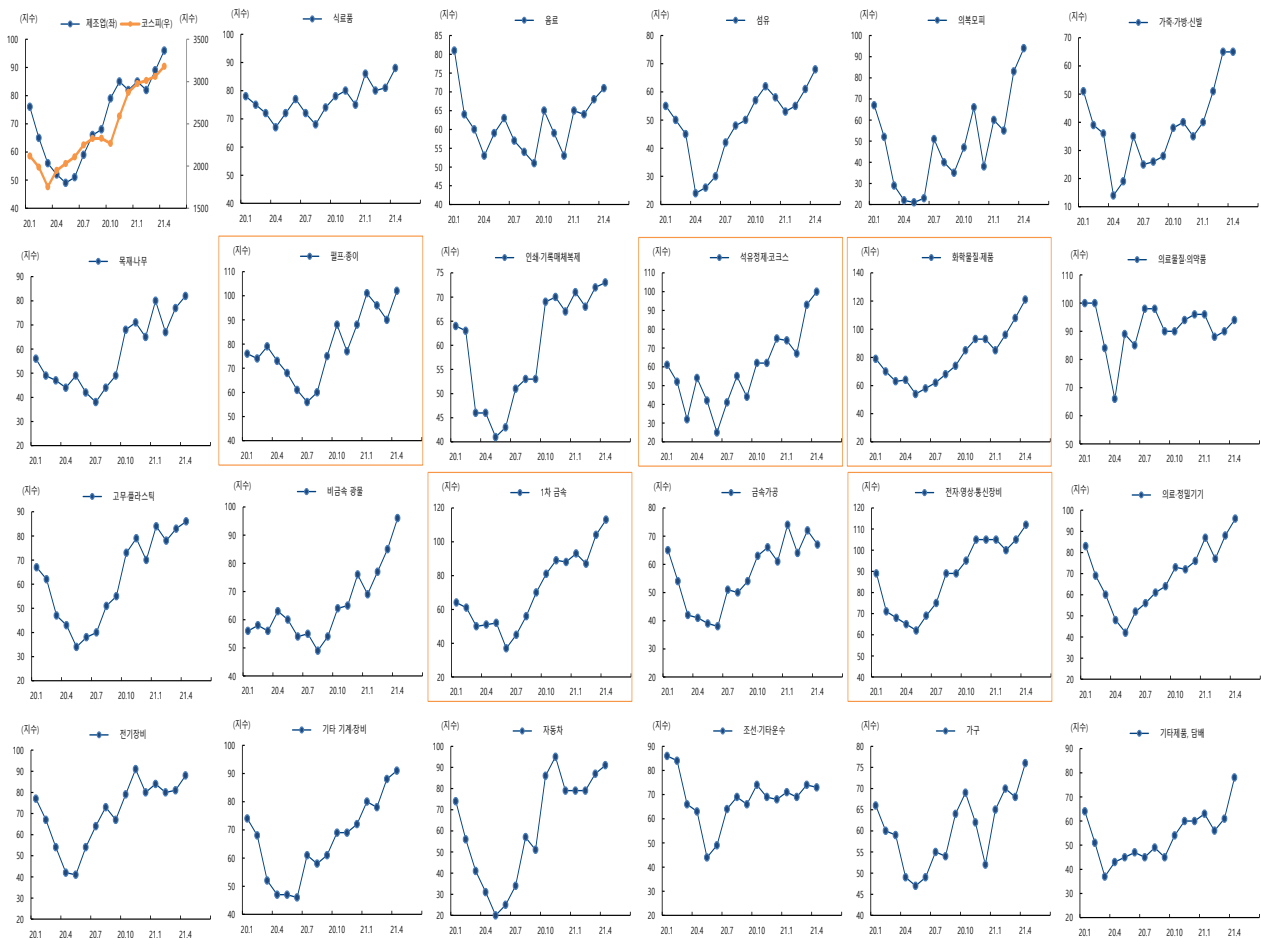


그림2. 2분기 GDP 호조를 예고하는 4월 경제심리지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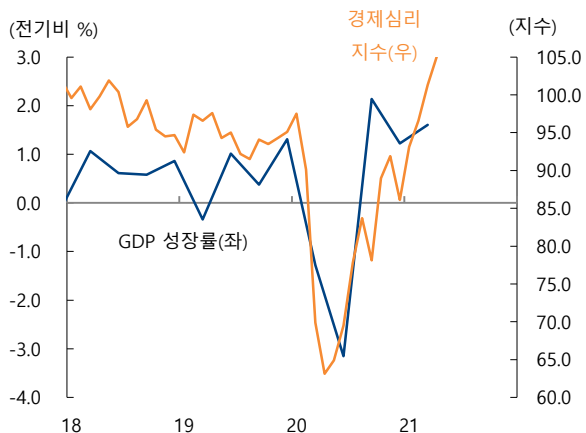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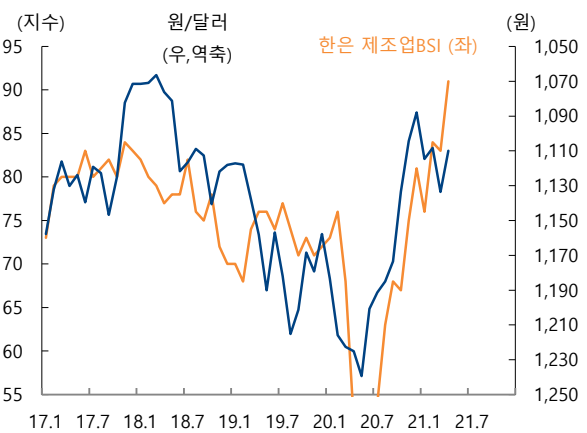


그림3. 국내 경제 펀더멘탈 개선과 달러화 약세로 원/달러 환율 추가 하락 압력이 커지고 있음



자료: Bloomberg, CEIC, 하이투자증권 리서치센터

■ 4월 제조업 업황 BSI, 10년만에 최고치

- ✓ 4월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대비 7pt 상승한 96으로 11년 5월 이후 10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함. 글로벌 주요국 제조업 업황 사이클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흐름과 맥을 같이하고 있음
- ✓ 제조업 내 업종별 업황 BSI를 살펴보면 화학물질·제품(업황 BSI 121), 1차 금속(113), 전자·영상·통신장비(112), 펄프·종이(102) 및 석유정제·코크스(100) 업종의 경우 장기 제조업 업황 BSI 평균치(03.1~20.12월)인 78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강한 업황 호조를 보여주고 있음. 여타 업종의 경우에도 대부분 연초 이후 강한 반등 모멘텀을 이어가면서 장기 제조업 업황 BSI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음
- ✓ 소재 및 산업재 등 구경제 관련 업종의 업황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
- ✓ 4월 비제조업 업황BSI도 82로 전월에 비해 5pt 상승함. 다만,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제조업 업황 BSI 상승 폭에 비해서는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감

■ 4월 경제심리지수(ESI)는 2분기 성장률 호조를 예고

- ✓ 4월 소비심리와 기업경기실사지수의 동반 급등으로 경제심리지수도 전월대비 4.0pt 상승한 105.3을 기록하면서 지난 12년 4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함
 - ※ 참고로 경제심리지수(ESI)는 기업과 소비자 등 모든 민간 경제 주체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BSI(기업경기실사지수)와 소비심리지수(CSI)를 합성한 지수임
- ✓ <그림2>에서 보듯 경제심리지수와 GDP성장률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왔음을 감안할 때 1분기 GDP성장률 호조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질 공산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
- ✓ 이처럼 국내 경제 펀더멘탈 개선과 함께 달러화 약세 영향 등으로 원화 가치의 추가 상승, 즉 원/달러 환율 추가 하락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

Compliance notice

- ▶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및 제 3자에게 E-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▶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(작성자 : 박상현)

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, 따라서,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,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,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.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.